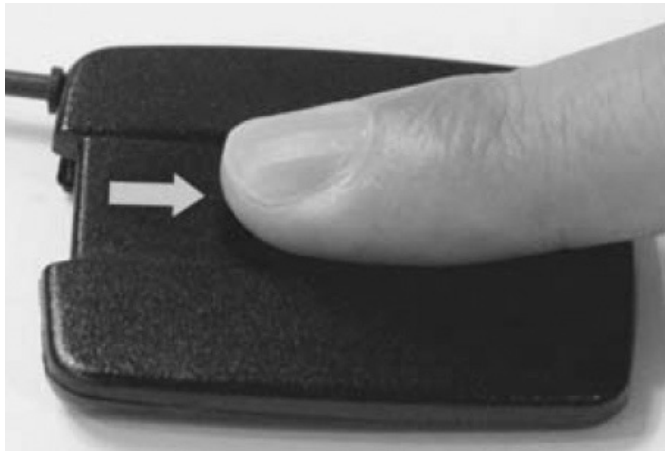


나라장터, 「지문인식 전자입찰」제도 시행



정부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가 △동일PC입찰 △인증서 양도·대여 △입찰 대리인 복수등록 등의 불법·부정 입찰을 줄이기 위해 4월부터 「지문인식 전자입찰」제도를 시행한다.

조달청은 나라장터를 개장하면서 IT강국답게 PC입찰을 결정했고, 인감을 대체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를 도입해 운영단계에서 불법 전자입찰을 근절코자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온라인상의 부정적인 방법이 날로 지능화되면서 입찰질서를 어지럽히게 되자, 실제 입찰자의 신원을 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문인식기술을 도입하게 됐다. 이번에 개발된 지문인식입찰시스템은 지문의 외피가 아닌 진피를 인식하기 때문에 실리콘이나 OHP필름 등을 통한 지문위조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이런 최신 지문인식 기술을 이용해 온라인상에서 입찰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사전에 등록된 입찰자의 신원과 동일한 경우에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다. 조달업체의 입찰자대표 또는 대리인은 4월 이전에 국내 5개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지문보안토큰을 구매하고 주민등록증과 지문보안토큰을 지참해 조달청 고객지원센터를 찾아 신원을 확인한 뒤 지문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지문 정보는 최대 3명까지 보안토큰에 등록돼야 입찰할 수 있게 됐다.

「지문인식 전자입찰」제도는 단계적으로 확대돼 7월에는 나라장터뿐 아니라 모든 발주기관에 적용될 방침이다.[편집자주]

I. 적용 일정

적용일시	지문인식 전자입찰 적용 입찰	비고
2010. 4. 1	조달청 집행(중앙조달) 시설공사 입찰 (감리, 설계 등 시설공사 기술용역 제외)	4월 1일 입찰공고부터 적용
2010. 5. 15	조달청 집행(중앙조달) 물품, 용역 입찰 (감리, 설계 등 시설공사 기술용역 포함)	5월 15일 입찰공고부터 적용
2010. 7. 1	기관 자체 집행(자체조달) 물품, 용역, 시설공사 입찰 - 지자체 등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입찰	7월 1일 입찰공고부터 적용

II. 나라장터 지문인식 전자입찰 세부 이용 절차

1. 이용절차 개요



조달업체 이용자는 공인인증기관에서 ①지문보안토큰을 구매 신청 → ②지문등록 방문 예약 신청 → ③조달청을 방문, 지문 등록 및 수령 → ④모의 지문인식 전자입찰 참가를 통해 사전 체험

2. 세부 이용절차

- 1단계 : 지문보안토큰 구매 신청
(공인인증기관에서 온라인 구매)
 - ① 공인인증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 나라장터용 지문보안토큰을 구매 신청 및 대금 결제(구매 신청은 2.1일부터 인증기관별로 신청 가능)
 - 구매 신청 및 대금 결제는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처리
 - ② 지문보안토큰 구매 신청이 완료되면, 지문보안토큰 수령증을 출력
 - 지문보안토큰 수령증은 조달청 민원실 방문시 반드시 지참
- 2단계 : 지문등록 방문 예약 신청(나라장터 홈페이지)
 - ① 나라장터에 접속하여 지문등록을 위한 조달청 민원실 방문 일정 예약
 - 방문할 지방청과 해당 일자를 선택하여 방문 예약(오전/오후/야간으로 구분) 신청
 - 방문 예약 신청이 완료된 경우, 예약 확인증을 출력하여 방문시 지참
 - * 조달업체의 단기간 집중에 따른 대기시간 최소화를 위해 사전 방문 예약제 도입

□ 3단계 : 신원확인 후 지문정보를 등록하여
지문보안토큰 수령

- ① 예약 신청한 지방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원확인 후 입찰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지문정보를 지문보안토큰에 저장
 - 지문을 등록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입찰참자자격 등록증상에 등록된 대표자와 입찰대리인만 가능
 - * 등록이 되지 않은 입찰자는 방문 전에 입찰자 등록을 완료한 후, 방문 필요
 - ** 방문예약 확인증, 지문보안토큰 수령증, 신분증 반드시 지참 및 제출
- ② 지문정보 등록 후, 등록된 지문정보의 정상 인식여부 확인
 - * 지문등록시 정확한 지문정보가 등록되지 않는 경우, 전자입찰 참가시 지문인증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상 인증 여부 확인

□ 4단계 : 프로그램 설치 및 공인인증서 복사 후,
지문인식 전자입찰 체험

- ① 지문보안토큰 구동 프로그램 사용PC에 설치

- 지문보안토큰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구동 프로그램을 PC로 다운로드 받아 직접 설치(나라장터에서 다운로드가 가능)
- 나라장터 다운로드 화면에 접속, 화면 안내에 따라 구동프로그램 설치
- ② 지문보안토큰에 공인인증서 복사
 - 현재 사용 중인 법인용 및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지문보안토큰에 복사
 - * PC나 USB에 저장된 인증서를 백업용으로 별도 보관 필요
 - 나라장터 인증서 복사 화면에 접속, 화면 안내에 따라 인증서 복사
- ③ 나라장터 보안모듈 설치 및 모의 지문인식 전자입찰 체험
 - 나라장터 안내 화면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입찰자의 지문을 인식한 후 공인인증서를 선택하여 입찰서 제출
 - * 나라장터 보안프로그램 및 문서 송·수신 프로그램(나라장터 우측 상단 - e-고객센터 - 자료실 - 일반자료실 72번) 설치



놀라운 발견과 위대한 발명

피아노

1707년 이탈리아의 크리스토포리는 건반 악기 하프시코드와 클라비코드를 개량하여 피아노를 만들어 냈다. 소리의 강약 조절이 가능했기 때문에 ‘약하게 또 강하게’라는 뜻의 피아노 에 포르테’라고 이름 붙였다. 독주용뿐 아니라 반주용으로도 쓰였으나 처음 피아노가 나왔을 때는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했다. 음악가들은 피아노를 두고 너저분한 악기라고 비웃었는데 이는 당시 음악가들이 여운이 남는 소리를 싫어했기 때문이었다.

모차르트와 베토벤이 피아노를 통해 훌륭한 음악을 작곡하자 그 때부터 피아노가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18세기 중엽에는 다양한 형태의 피아노가 생겨났고 19세기에는 개인 소유의 피아노가 늘어났다. 그 뒤 여인들은 피아노를 연주하며 교양을 뽐냈으며 가족이 모여 피아노 연주를 하거나 들으면서 즐겼다.

「말랑말랑한 절대상식」 중에서